

• 누가복음 23:34; 에베소서 4:32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용서'하셨습니다. 그 사랑과 용서가 오늘날 나에게까지 미쳤습니다. 용서는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엡 4:32).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시비를 가리고 일의 선후를 따지셨다면 하나님의 뜻, 곧 구원의 역사는 완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용서에는 기적과 기쁨이 담겼습니다. 예수님은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다.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눅 7:37-50). 여인의 삶에 평안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 사함을 받고 그 기쁨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딤후 1:13-16; 롬 11:13).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죄 사함을 통해 영생을 얻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요 5:24).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요 13:1). 자신을 배신할 가롯 유다도, 베드로도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통곡하며 돌이켰지만, 가롯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각자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완결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죄인의 문제입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주홍같이 붉은 죄를 자백하고 주께 돌이키면 용서와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과 용서를 원합니다. 필립 안시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스페인에서 한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찾기로 결심하고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파코야, 화요일 정오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아빠는 너를 다 용서했다. 나를 용서해 다오. 아빠가.” 그날 호텔에는 무려 800명의 ‘파코’가 나와서 저마다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이 비난과 고통의 악순환과 비은혜의 사슬을 끊을 수 있습니다.

나는 용서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 ❶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진정한 회개로 나아갑니까?
- ❷ 서로를 비난하는 악순환을 끊고, 용서의 자리로 먼저 나아갑니까?